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생활규제 개혁'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소비 후생 감소… 폐지해 경쟁유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3개 주제에 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토론회 참석자들도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축소 등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정가 판매 제도다. 웹툰·웹소설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라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를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독자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밝혔다.

다른 소비자는 영세 서점의 경우 현행 15%로 제한된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웹툰·웹소설 같은 신산업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서점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했다. 또 춘천시민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의 애독서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고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방위 수출지원 결실

2023년 농수산식품 수출 120.2억 달러

농식품유통공사,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 운영으로 전방위 수출 지원 결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3년 농수산식품 수출(잠정)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120.2억 달러로,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국가산업 전체 수출이 7.5% 감소한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은 2.3% 증가한 90.3억 달러이며, 수산식품은 4.6% 감소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공사는 지난 2월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추진본부와 함께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전방위 수출 총력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농수산식품 수출은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통 식품인 김치, 장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수산은 대표품목인 김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7.9억불(1조 2백억원)의 수출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K-콘텐츠 등 한류 확산으로 높아진 수요를 바탕으로 라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으며, 소주는 역대 최초로 1억불 수출을 돌파했다.

김치의 경우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효과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아세안, 미국, CIS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 중국, EU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아세안에서는 딸기가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29.3% 증가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재훈기자

농진청,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 90품종 한 권에 엮어

농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 세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돼지 품종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는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을 발간했다.

돼지는 약 9,000년 전부터 중국과 근동 지역에서 가축으로 길러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민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돼지는 2022년 기준 약 7억 8,400마리에 이른다. 지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 '이베리안 돼지', 곱슬곱슬한 금빛 털을 가진 헝가리 '망갈리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돼지 품종인 인도 '피미그 호그' 등 90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품종부터 기원한 지역 환경에 적응해 고유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품종에 이르기까지 돼지 품종별로 역사, 특성, 분포 등을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인 한국 돼지 세 품종도 실려있다. 우리나라 돼지는 멧돼지에서 유래해 고구려 시대부터 한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 품종과는 차별화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 책 표지

우리나라도 고유 가축유전자원인 '한국 재래돼지'를 보호하고 신품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재래돼지는 한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아온 재래품종으로 축진참돈 계통과 제주흑돼지 계통으로 나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진참돈과 두록 품종을 교배해 '우리흑돈' 품종을 개발,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품종을 교배해 '난축맛돈'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책을 배부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기 기자

NH농협, 전북자치도 출범 완료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200억 돌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출시한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2024년 1월 18일 기준 가입금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의 뜻깊은 마음이 모여서 상품출시 50일 만에 200억을 달성하였으며, 총 한도 1,000억원 달성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마련된 특화상품(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00만원이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도내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연간 평균잔액의 0.1%을 농협은행이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전북농협 신청사 전경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성공예금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개 식용 종식 보상 방안 논의'… 농식품부, 전담 조직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뉴시스